

용적률 게임: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

June, 2016

정 연두, 강 성은, 백 승우 외 2 명의 아티스트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 May 28 - November 27 2016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은 올해 김성홍 예술감독과 신은기(인천대 조교수)·안기현(한양대 교수), 김승범(VW 랩 대표), 정이삭(에이코랩 대표), 정다운(코아아키텍츠 팀장) 공동큐레이터의 기획으로 “용적률 게임: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을 개최한다. 이들은 한국건축을 둘러싼 많은 조건과 제약들 중에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건물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을 최전선의 조건으로 삼고, 한정된 대지에 최대의 건물 면적을 요구하는 건축주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질을 추구하는 건축가, 법과 제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사회적 현상을 의미하는 ‘용적률 게임’을 테마로 제시한다. ‘용적률 게임’의 현재를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큐레이팅팀은 서울 시내의 약 60만 동의 건물을 분석하고, 그 중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축물 36개를 선정하여 용적률이 건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과 모형을 설치한다. 이들에게 ‘용적률’은 한국 사회현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집단의 욕망을 드러내는 지수이며, 이를 통해 한국 특유의 압축성장을 조명하면서도 도시 재생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IMAGES FROM THIS EXHIBITION



Building Recollections, Installation view "... video



Building Recollections, Installation view "... video



Building Recollections, Installation view "... video



from "The FAR (Floor Area Ratio) Gam...